

로보틱스 (Overweight)

AI 100조 펀드 속에 숨어있는 로봇

Issue Comment

[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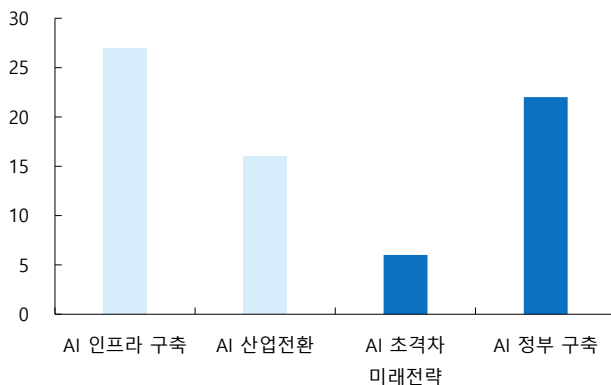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대표하는 AI 100조 펀드 속 국내 로보틱스 산업 수혜 가능성도 분명 담겨져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장은 정책 수혜주를 바쁘게 찾는 중이다.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하는 정책 모멘텀은 상법 개정을 위시한 배당 소득세 개편 등도 있지만, 결국 주요 산업을 향한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이 핵심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AI 100조 펀드이다. AI 100조 펀드 정책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하겠다는 모자펀드 (국책은행 및 연기금이 출자한 모펀드와 민간으로 구성되는 자펀드) 구조로 구성된다. 즉 먼저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모펀드를 구성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들은 위 모펀드에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AI 100조 펀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민펀드를 통한 AI 대전환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100조 펀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 중이다. 그리고 AI 100조 펀드 정책의 첫번째 수혜주는 소버린 AI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국가 주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출발할 것에는 큰 이견이 없고, AI 100조 펀드 내 투자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를 위한 GPU 구매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비용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로보틱스 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 AI 100조 펀드 정책 중 핵심인 국가 주도 데이터센터는 국내 로보틱스 산업 육성의 토양이 될 것이며, (2) 또한 높은 확률로 상당 부분의 금액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으로의 직접적 투자로 연결될 것이고,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차량, 로봇 등에 활용되는 AI 인프라를 소위 Physical AI라 구분하지만, 결국 데이터 수집-전처리-학습-추론의 과정을 공유한다. 즉 국가 주도 데이터센터는 단순 LLM 생태계 육성뿐 아니라 Physical AI 인프라로도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Boston Dynamics,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등과 같은 대형 업체의 비용 부담도 덜어줄 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2): AI 100조 펀드의 예상 투자 산업이 여럿 있지만, 이 중 로보틱스 산업 내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여러 업체가 연구개발비 및 기본 운영 자금 조달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제품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동시에 지출되고 있다는 배경에 기인한다. 협동로봇을 비롯한 휴머노이드 산업 내 중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림1. K-이니셔티브 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세부 산업별 필요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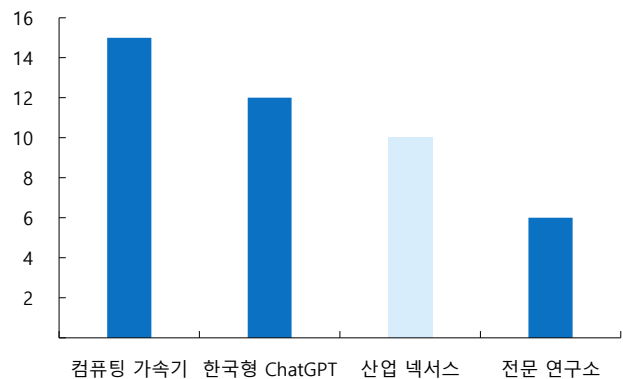
(조원)



자료: K-이니셔티브 위원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AI 인프라 구축 (컴퓨팅 가속기, 한국형 ChatGPT), AI 산업 전환 (산업 넥서스, 전문 연구소) 세부 필요 투자 금액

(조원)



자료: K-이니셔티브 위원회, iM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5월 공개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정책의 구체화 과정 속 수혜주를 찾을 수 있을 것

이외에도 기존 로보틱스 육성 정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첨단로봇산업전략과 2025년 5월 발표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현재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로보틱스 산업 육성 정책들이다. 첨단로봇산업전략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첨단로봇 100만대 보급, 인증 표준화를 통한 로보틱스 인프라 확보 등을 표방했으나, 이후 실제 정책단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와 달리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정책 구체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산업 내 국내 업체가 처해있는 상황과 휴머노이드 산업 내 국내 업체들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전통적인 국내 효자 산업을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 대비 출발 자체가 늦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처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성장의 가장 큰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 모델이 있다 (단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을 넘어서 민관 합작사 설립 및 관련 공유 인프라 제공). 즉 객관적으로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에선 국내 업체들은 분명 중국 대비 뒤쳐져 있다. 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중국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제 정책 단에서 천명한 것이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이다.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업체는 AI 개발 그룹, 로봇 제조사 그룹, 부품 그룹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학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AI 개발 그룹을 제외하면, 총 23개 기업이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업체의 규모도 크지 않고,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입증한 업체의 수도 많지 않다. 향후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 확대 및 국책 과제를 통한 개별 업체 단의 휴머노이드 기술력 입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정책 구체화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방법은 (1) 기존 참여 업체 중 경쟁력이 높거나, 향후 휴머노이드 수혜 정도가 큰 업체를 선별, (2) 새롭게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발굴 등이 있을 것이며 세부적으로 기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상장 업체 중 휴머노이드 관련 경쟁력이 돋보이는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센서, 배터리 등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따른 관련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SK On, 삼성SDI 등 셀 업체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2): 현대자동차와 같은 종합 로봇 업체, 현대모비스, 하이젠알앤엠, 삼현 등의 액츄에이터 설계 및 생산 업체, 씨메스 및 클로봇과 같은 비전 플랫폼 공급 업체나 SI 업체들이 새롭게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3.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주요 참여 업체 개요 및 투자포인트와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 개요 및 투자포인트

로봇 제조사 그룹			
업체명	상장 유무	휴머노이드 기술력	투자포인트
레인보우로보틱스	O	높음	25년 하반기 신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 임박, 이외에 협동로봇 및 물류 로봇 관련 동향도 포인트
원익로보틱스	O	보통	Meta와 개발 중인 텍스트러스 개발 향방에 주목. 당사는 비상장이나 원익홀딩스를 통한 간접 투자 가능
엔젤로보틱스	O	보통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업체. 주요 제품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3차 병원 및 재활 센터로 외연 확대 전망
뉴로메카	O	낮음	경쟁 업체 대비 높은 탐라인 성장세. 국내 조선 3사향 용접용 협동로봇 추가 수주 기대. 포스코와 협력 방향 주목.
두산로보틱스	O	낮음	협동로봇 관련 본업 업황이 좋지 않지만, 올해 초 발표한 휴머노이드 관련 로드맵은 주목할 필요 있음
LG전자	O	낮음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나, 서비스 로봇 상용화 후 점진적인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임
HD현대로보틱스	O	낮음	산업용 로봇 외 제품 포트폴리오가 전무한 것이 약점이나, 관계사와 협력한 휴머노이드 개발 참여 가능성 존재
신규 편입 가능성 높은업체			
현대자동차	O	높음	
로봇 부품 기업			
업체명	상장 유무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력	투자포인트
SK On	O	보통	로봇용 배터리 공급망 확대 가능성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AMR)
삼성SDI	O	보통	로봇용 배터리 공급망 확대 가능성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AMR)
리벨리온	X	보통	로봇용 AI 반도체 개발 (엣지 AI 연산 특화), Physical AI 추론용 서버용 반도체 개발
딥엑스	X	보통	로봇용 AI 반도체 개발 (엣지 AI 연산 특화)
테슬로	X	보통	휴머노이드용 AI 뇌 개발 목표 (로보틱스 OS + 하드웨어)
에이딘로보틱스	X	높음	로봇용 토크 센서 개발하는 업체, 텍스트러스용 센서에 감점
로보티즈	O	높음	로봇용 액츄에이터 공급 업체이며, 매출 비중 90%. Tesla, Unitree Robotics 등 주요 고객사 확보
페러데이다이내믹스	X	보통	로봇 모션 플랫폼 기반의 근력 증강 기술 보유
코모텍	X	보통	정밀 모터 및 감속기 기반 로봇 핵심 부품 전문
에스비비테크	O	낮음	자체 개발한 하모닉 감속기 및 로보드라이브 감속기를 주요 업체에 공급
신규 편입 가능성 높은업체			
현대모비스	O	보통	향후 현대자동차 및 Boston Dynamics의 로봇용 액츄에이터 설계를 맡을 가능성이 높음
하이젠알앤엠	O	보통	스마트 액츄에이터 솔루션 공급하나, 아직 로봇용 제품 레퍼런스가 부족한 것은 약점
삼현	O	보통	현대자동차량 자동차용 액츄에이터 공급 업체. 협동로봇 및 휴머노이드용 액츄에이터 개발 중인 상황
씨메스	O	보통	여러 종류의 센서와 자사 AI 비전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턴키 솔루션 제공. 물류/협동로봇 업체가 주요 고객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2.5%	6.8%	0.7%